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교내 학술제 첫 번째 발표자 ○○○입니다. 먼저, 짧은 영상을 보여 드리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TV 드라마 화면을 보여 주며) 방금 본 영상에서 ‘한뉘’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니 ‘한뉘’는 ‘한평생’이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한뉘’는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우리 학교 도서관의 이름이기도 하지요. 예스러운 멋과 부드러운 어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예로부터 쓰인 순우리말을 드라마 속에서 만나니 반갑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다음 단어들은 어떨까요? (㉡ SNS 화면을 보여 주며) ‘선물’을 뜻한다는 ‘아토’, ‘친구’를 뜻한다는 ‘씨밀레’ 등이 보입니다. 이 단어들은 ‘예쁜 순우리말 목록’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휘들입니다. 본 적이 있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꽤 많은 분들이 보셨군요. 이 어휘들은 순우리말이라는 이름으로 공공 기관이나 상품명에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순우리말’이란 무엇일까요? 순우리말이란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로, 흔히 한자어나 외래어가 아닌 말을 뜻합니다. 과연 ‘아토’나 ‘씨밀레’와 같은 단어들이 순우리말일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두 단어의 어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어사전도 찾아보고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어사전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은 물론 (㉢ 홈페이지 질의응답 화면을 보여 주며) 화면과 같은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휘들은 본디 있던 말이 아닐뿐더러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순우리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이런 어휘들이 순우리말로 알려지게 되었는지 출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어휘들은 주로 청소년들이 보는 판타지 소설이나 SNS 상에서 임의로 지어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외래어를 조합한 것으로, 순우리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순우리말을 찾아내 사용하려는 노력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외래어에서 파생된 말에 순우리말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우리말을 사용하려는 노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어휘들을 순우리말로 혼동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청중의 경험을 환기시켜 발표 내용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③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하여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제시하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 ⑤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발표를 참고할 때,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서 나온 어휘가 옛말에서 어떤 형태였는지를 알리기 위해 ㉡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에서 나온 어휘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알려 주기 위해 ㉡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에서 나온 어휘를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에서 나온 어휘의 다양한 의미를 소개하기 위해 ㉢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에서 나온 어휘와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기 위해 ㉢을 제시하고 있다.

3. 다음은 발표를 들은 후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발표자가 한 것처럼 순우리말이라고 알려진 말의 근거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순우리말에서 유래되었는지 아닌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학생 2: 나는 ‘바다’라는 뜻을 지녔다고 하여 운하나 배의 이름으로 쓰이는 ‘아라’가 사실 옛말에서는 ‘바다’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기사에서 본 적이 있어. 이처럼 나도 순우리말인 줄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학생 3: ‘한뉘’가 ‘한평생’이라는 뜻이었구나. 이번 발표를 통해 ‘한뉘’와 같이 순우리말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어. 우리 학교 ‘동아리 발표회 명칭 공모전’에 응모할 때, 순우리말 이름을 지어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자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4~7] (가)는 설문 조사를 위한 학생회의 회의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동아리 발표회를 12월에서 10월로 바꾸고 전시 위주로만 진행되던 행사에 다른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행사 내용을 다양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우리 반 친구들과 동아리 후배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

학생 2: 그래? 우리 반 친구들은 동아리 발표회에 3학년이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던데.

학생 3: 학년과 학급에 따라 생각이 다르구나. 동아리 발표회 시기 변경과 행사 프로그램 추가 여부는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아.

학생 2: 그럼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폐쇄형 질문 형태의 설문지를 만들어 전교생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어때?

학생 3: 그렇게 하면 발표회 시기 변경이나 행사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알기 어려울 것 같아. 또한 동아리 발표회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요구 사항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 1: 그럼 학급별로 3~4명의 모집단을 선정한 후 면접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고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을 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생 2: 그 방법은 모집단 선정 기준과 선정된 학생이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것 같아.

학생 3: ㉠ 그럼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되, 발표회에 대한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과 요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건 어때?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설문 조사 방식은 그렇게 진행하자. 그럼 설문 문항에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야 할까?

학생 2: 먼저 발표회 시기 변경과 행사 프로그램 추가에 대한 찬반 여부를 확인해야겠지. 그리고 추가 질문을 통해 그 이유나 추가하고 싶은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3: 발표회 시기 변경이나 행사 프로그램 추가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개방형 질문 형태로 그 이유를 물어 보자.

학생 1: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프로그램 추가와 관련된 질문도 개방형 질문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학생 2: 그렇게 하면 지나치게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설문 조사 결과를 수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폐쇄형으로 질문지를 작성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

학생 1: ㉡ 그럼 프로그램 관련 추가 문항은 폐쇄형으로 추가 질문을 하고, 응답 항목 중 원하는 것이 없을 때 개방형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A]

[B]

학생 3: 그래, 그게 좋겠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으니,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각 교실에 설문 조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는 건 어때?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설문 조사 참여를 독려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문과 설문 문항을 작성한 후, 다음 회의 때 점검해 보자.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할게.

(나)

동아리 발표회 관련 설문 조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학생회입니다. 지난번에 개최된 학생회 회의에서는 동아리 발표회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등교 음악회 선곡 및 학급 단합 행사의 지원금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지난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아리 발표회 개최 시기 변경과 프로그램 추가 여부에 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학생회에서 실시하는 설문 조사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4. [A], [B]의 답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제시한 문제점을 반박한 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이 지닌 긍정적 측면을 인정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근거를 들어 언급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3’이 ‘학생 2’가 제시한 의견이 실현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이 야기할 문제점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5. (가)의 답화 흐름을 고려할 때,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의된 의견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그 방안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발화이다.
 - ② 논의된 의견들이 지닌 장점을 언급한 후 상대방에게 하나의 방안을 선택할 것을 권유하는 발화이다.
 - ③ 논의된 의견 중 하나를 지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후 그 방안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④ 논의된 의견들이 지닌 한계를 언급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⑤ 논의된 의견들을 시행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를 언급한 후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는 발화이다.

6. 다음은 추가 회의를 바탕으로 (나)를 고쳐 쓴 글이다. 고쳐 쓴 글에 반영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아리 발표회 개최 시기 변경 및 프로그램 추가 찬반 조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학생회입니다. 지난 6월에 개최된 학생회 회의에서 12월에 개최되는 동아리 발표회를 10월로 변경하여 실시하자는 의견과 동아리 발표회 행사의 다양화를 위해 행사 프로그램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동아리 발표회 개최 시기 변경과 프로그램 추가 여부에 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이 학생이 함께 학교를 만들어 가는 데 디딤돌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설문 조사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① 제목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설문 조사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제목을 수정하자.
- ②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 있으므로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삭제하자.
- ③ 설문 조사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의 장점을 언급하며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자.
- ④ 설문 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문 조사 참여가 지닌 의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자.
- ⑤ 설문 조사와 관련된 논의 내용을 모르는 학생이 많으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자.

7.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 문항의 초고이다.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설문 문항 ◇

문항 1. 작년에 개최된 동아리 발표회에 참여하였습니까?
(1) 참여하였다. (2) 참여하지 않았다.

문항 2. 동아리 발표회 시기 변경과 행사 프로그램 추가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한다. (2) 동의하지 않는다.

2-1. 동의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2.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항 3. 동아리 발표회에 추가할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 체험 버스 (2) 전시회 (3) 학술제 (4) 기타 ()

- ① ‘문항 1’은 발표회 시기 변경이나 행사 프로그램 추가와 관련하여 회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굳이 설문 문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 ② ‘문항 2’는 동아리 발표회 시기 변경에 찬성하지만 행사 프로그램 추가에 반대하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 문항을 포함하여 각각 별도의 문항으로 분리하면 좋을 것 같아.
- ③ ‘문항 2-1’은 발표회 시기 변경과 행사 프로그램 추가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회의 내용을 고려하면 설문 문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아.
- ④ ‘문항 3’의 선택 항목 중 체험 버스는 이미 동아리 발표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으므로 다른 행사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
- ⑤ ‘문항 3’은 설문 조사 결과 수합의 용이성과 답변의 다양성을 둘 다 확보하기 위해 폐쇄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을 섞어 작성했다는 점에서 회의 내용을 잘 반영한 문항 같아.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지역 하천과 주변 습지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생물들의 보호를 위한 건의문 작성하기
○ **예상 독자:** ○○시청 정책 담당자

[학생의 초고]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사는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장천 주변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 장천과 그 주변 습지에는 많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멸종 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개구리뿐만 아니라 꼬마잠자리나 가시연꽃과 같은 희귀 생물들이 발견되어 생태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인근 지역의 자전거 도로들을 연결하기 위해 장천을 따라 새로운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자전거 도로 연결 공사가 진행된다면 장천 인근의 습지가 매립되어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 서식하는 생명들이 삶의 터전을 잃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드는 대신,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장천 주변의 둘레 길을 연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변 습지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 보호는 물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외면을 받았던 장천 주변의 둘레 길까지 정비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장천은 습지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쓰레기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절약한 예산으로 장천과 그 주변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들과 서식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장천 주변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보호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긴 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건의를 마치겠습니다.

8.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 장천 둘레 길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고 있다.
- ② 건의 내용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둘레 길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져올 다양한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건의 내용의 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건설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④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장천과 그 주변 습지에 서식하는 희귀 생물들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 ⑤ 건의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천 습지를 매립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9. <보기>는 '학생의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보기>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통계 자료

1. 생물 종 감소 원인

(단위: %)

2. 지역 주민 대상 설문 조사 결과

| 장천 주변 습지 방문자를 위한 효과적인 정보 제공 방법 | |
|--------------------------------|-----|
| 습지 생태 안내판 | 47% |
| 시청 홈페이지 | 23% |
| 시청 공식 SNS | 15% |
| 지역 신문 | 7% |
| 기타 | 8% |

(나) 신문 기사

△△ 생태공원은 한강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이자 지역 주민의 생활·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하고 희귀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후 정부에서는 매년 환경 평가를 실시해 공원 상태를 점검·관리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역시 공원 환경 지킴이, 환경 정화 캠페인 활동으로 공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생태공원은 지역 주민과 정부가 생태 환경 보호와 지역 주민 복지라는 두 가지 공익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한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다) 전문가 인터뷰

습지의 가치는 다양합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의 서식처를 제공해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생태적 가치', 장마철이나 홍수 때의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주위에 공급하는 '수문으로서의 가치'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수자원 개발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수질을 정화해 환경 오염에 따른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경제적 가치'도 지녀 그 보존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장천 주변 습지에 살고 있는 멸종 위기 생물의 보호를 위해 서식지 보호가 필요함을 부각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장천 주변 습지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 장천 습지를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 ③ (다)를 활용하여, 장천 주변 습지가 생태적 가치 외에도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는 내용을 장천 주변 습지 매립에 반대하는 근거로 추가한다.
- ④ (가)-1과 (나)를 활용하여, 행정 기관과 지역 주민이 연계한 서식지 보호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생물 종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추가한다.
- ⑤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장천 주변의 습지가 지닌 가치를 알리기 위해 장천 주변 습지 방문자를 위한 생태 안내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추가한다.

10. 선생님의 조언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글의 마무리로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그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자연과 마을 주민들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구나.

- ① 기존 자전거 도로와 둘레 길을 연결한다면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실현될 것입니다.
- ② 기존 자전거 도로와 둘레 길을 연결한다면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도 안전하고 깨끗해진 둘레 길에서 건강과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 ③ 기존 자전거 도로와 둘레 길을 연결한다면 주민들은 정비된 둘레 길을 통해 자연 속 휴식처를 얻게 되고, 멸종 위기 생물들은 안전한 서식처를 얻게 될 것입니다.
- ④ 기존 자전거 도로와 둘레 길을 연결한다면 주민들은 자연이 주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게 되고, 이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힘쓸 것입니다.
- ⑤ 기존 자전거 도로와 둘레 길을 연결한다면 습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어 생물 종 다양성을 확보하면서도 멸종 위기종의 개체 수는 증가할 것입니다.

11.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발일[반닐] ㉡ 훑는[홀른] ㉢ 같이[가치]

- ① ㉠에는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과 ㉡은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생겼다.
- ③ ㉠은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 ㉢은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④ ㉡은 자음으로 인한, ㉢은 모음으로 인한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⑤ ㉠, ㉡,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탈락과 교체이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관형사나 체언이 그대로 관형어가 되기도 하며, 체언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형태나 용언의 관형사형으로도 나타난다. 또한 관형절도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관형어는 필수적인 성분은 아니지만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의존 명사이면 그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한다. 한편 관형격 조사 '의'는 앞과 뒤의 체언을 의미상으로 어떤 관계에 놓이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조국 통일의 위업'은 앞 체언과 뒤 체언이 ㉠ '의미상 동격'의 관계, '나의 옷'은 '소유주-대상'의 관계, '우리의 각오'는 ㉡ '주체-행동'의 관계, '조카의 아들'은 '사회적·친족적' 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중세 국어의 관형어도 현대 국어와 같은 방식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거나 현대 국어의 관형어와 구별되는 특이한 현상도 있었다.

- (가) 사르미 몸 (사람의 몸)
- (나) 불휘 기픈 남근 (뿌리가 깊은 나무는)
- (다) 前生엿 이리 (전생에서의 일이)
- (라) 아버의 便安히 안즌 들 (아버가 편안히 앉은 것을)

(가)에는 관형격 조사 ‘이’의 결합에 의한, (나)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으)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관형절에 의한 관형어가 나타난다. 이와 달리 (다)의 ‘前生엿’은 ‘체언 + 부사격 조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에 관형격 조사 ‘시’이 붙어 관형어가 된 경우이다. (라)의 ‘아버의’는 ‘아버가’로 해석되는데, ‘안즌’의 의미상 주어인 ‘아버’에 주격 조사가 붙지 않고 관형격 조사 ‘의’가 붙은 것으로 안긴문장의 의미상 주어가 관형격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와 (라) 같은 용법들은 현대 국어에도 일부 남아 있다.

12. 윗글을 참고할 때,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
| ① | 너의 부탁 | 친구의 자동차 |
| ② | 자기 합리화의 함정 | 친구의 사전 |
| ③ | 회장의 칭호 | 영희의 오빠 |
| ④ | 은호의 아버지 | 친구의 졸업 |
| ⑤ | 질투의 감정 | 국민의 단결 |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관형어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중세 국어의 예>

㉠ 부텨 것 도죽혼 罪 (부처의 것을 도둑질한 죄)

㉡ 식미 기픈 믈른 (샘이 깊은 물은)

<현대 국어의 예>

㉢ 어머니의 낱은 지갑은

㉣ 저자와의 대화

- ① ㉠의 ‘부텨’는 의존 명사 앞에 쓰여 생략할 수가 없군.
- ② ㉡의 ‘식미 기픈’은 현대 국어와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것이군.
- ③ ㉠의 ‘부텨’는 체언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의 ‘식미 기픈’은 관형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군.
- ④ ㉢의 ‘어머니의’는 관형절의 의미상 주어가 관형격으로 실현된 것으로 중세 국어의 용법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군.
- ⑤ ㉣의 ‘저자와의’는 부사어 뒤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 관형어가 된 것으로 중세 국어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용법이군.

14. <보기>의 대화에서 ㉠ ~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오늘은 ‘한글맞춤법 제21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깔’처럼 ㉠ 명사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 ‘덧개’처럼 ㉡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것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습니다.

학 생: 선생님, 그럼 ‘널찍하다’의 경우에는 왜 어간의 원형인 ‘넓’을 밝히지 않고 소리대로 적나요?

선생님: ‘널찍하다’처럼 ㉢ 접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와 ‘넙치’처럼 어원이 분명하지 않거나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습니다.

- | | | | |
|---|-----|-------|-------|
| | ㉠ | ㉡ | ㉢ |
| ① | 멋쟁이 | 굽기 | 알따랏다 |
| ② | 넙두리 | 값지다 | 말끔하다 |
| ③ | 떡거리 | 낚시 | 할짝거리다 |
| ④ | 오뎅이 | 금적거리다 | 잘막하다 |
| ⑤ | 옆구리 | 지우개 | 깊숙하다 |

15.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언어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원래 ‘주책’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주책없다’처럼 ‘주책’이 주로 ‘없다’와 함께 쓰이다 보니 부정적인 의미도 갖게 되었다. 즉, ‘주책’은 ‘일정한 잣대가 없이 되는 대로 하는 것’이란 의미도 갖게 되어 ‘주책없다’와 ‘주책이다’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한편 ‘에누리’는 상인과 소비자가 물건값을 흥정하는 상황에서 자주 쓰이다 보니 ‘값을 올리는 일’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값을 내리는 일’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되었다.

— <보기 2> —

ㄱ.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것을 보니 그는 주책이 없구나.

ㄴ.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하다니 그도 참 주책이다.

ㄷ. 에누리를 해 주셔야 다음에 또 오지요.

ㄹ. 그 가게는 에누리 없이 장사를 해서 적게 팔고도 많은 이윤을 남긴다.

- ① ㄱ의 ‘주책’은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의 의미로 쓰였군.
- ② ㄴ의 ‘주책’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 ③ ㄴ의 ‘주책이다’는 ‘주책없다’로도 바꿔 쓸 수 있겠군.
- ④ ㄷ의 ‘에누리’는 ‘값을 올리는 일’의 의미로 쓰였군.
- ⑤ ㄹ의 ‘에누리’는 ‘값을 내리는 일’의 의미로 볼 수 있겠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물전 개조개 한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 ㉠ 펠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 ㉡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건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올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 문태준, 「맨발」

(나)

나는 새장을 하나 샀다
그것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다
㉤ 날뛰는 내 발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작은 감옥이었던 것

처음 그것은 발에 너무 컸다
한동안 덜그럭거리는 감옥을 끌고 다녀야 했으니
감옥은 작아져야 한다
새가 날 때 구두를 감추듯

새장에 모자나 구름을 집어넣어본다
그러나 그들은 언덕을 잇고 보리 이랑을 세지 않으며 날지 않는다

새장에는 조그만 ㉥ 먹이통과 구멍이 있다
그것이 새장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오늘 새 구두를 샀다
그것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
내 구두는 아직 물에 젖지 않은 한 척의 배,

한때는 속박이었고 또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삶의 한 권에서
나는 가끔씩 늙고 고집센 내 발을 위로하는 것이다
오래 쓰다 버린 낡은 목욕통 같은 구두를 벗고
㉦ 새의 육체 속에 발을 집어넣어보는 것이다

- 송찬호, 「구두」

16.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내밀어 보이고 있다’의 반복을 활용하여 대상의 움직임에 관찰하는 화자의 시선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조문하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대하는 화자의 애상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슬픔을 견디었으리라’라는 추측을 통해 대상이 슬픔을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아— 하고 집이 올 때’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울던 것들이’와 ‘울음도 멎었으리라’의 대비를 통해 근본적으로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17. 다음을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인간의 신체 중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발’은 보통 삶의 무게를 견뎌 내야 하는 고단한 존재나 ‘발자취’와 같이 인간의 삶의 과정을 드러내는 존재로 표현된다. 또한 ‘발’은 ‘신발’과 함께 연결되어 표현되고는 한다. 이때 ‘신발’은 ‘발’을 보호하여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로 사용되는 동시에 발을 구속하는 의미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① ㉠: 신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부르튼 맨발’의 모습을 보여 주어 ‘펠과 물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고단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② ㉡: 신체의 가장 낮은 곳에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발’의 모습을 통해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살아가는 외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삶의 무게를 견뎌 내는 존재로서의 ‘발’을 통해 양식을 구하러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힘겨운 삶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 ④ ㉣: ‘발’을 구속하는 신발을 ‘작은 감옥’으로 표현하여 현실에 속박된 삶을 살아가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발’을 감싸는 신발을 ‘새의 육체’로 변주하여 일상의 구속을 깨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8.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암울한 사회의 상징이고, ㉥는 각박한 현실의 산물이다.
- ② ㉠에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 ③ ㉠은 삶의 유지와 관련된 행위이고, ㉥는 삶의 안주와 관련된 사물이다.
- ④ ㉠에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심리가, ㉥에는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 ⑤ ㉠에는 타인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에는 자신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나타난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송찬호의 「구두」는 ‘낮설게 하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낮설게 하기’는 친숙하고 일상적인 사물이나 관념을 낮설게 만들어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표현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와 연결지어 (나)를 감상해 볼까요?

- ① 신고 다니는 ‘구두’를 ‘감옥을 끌고’ 다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은 구두로부터 느끼는 압박감이 화자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음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 ② ‘새장’에 ‘구름을 집어넣어본다’는 발상은 좁은 ‘새장’에 하늘의 ‘구름’을 넣어 새가 자유롭기를 바라듯 화자 역시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새 구두’가 ‘구름 위에 올려져 있다’고 본 발상은 일상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풀어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내 구두’를 ‘한 척의 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든 출항할 수 있는 ‘배’와 같이 지상을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구두’를 ‘넓은 목욕통’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더러움을 씻어내는 ‘넓은 목욕통’과 같이 화자가 오랫동안 지켜온 순수함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란 LED의 발광층에 전기에너지를 받으면 특정한 색의 빛을 내는 유기물질을 넣은 것을 말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 RGB-OLED는 빛의 3원색인 적색, 녹색, 청색을 내는 서브픽셀 세 개가 모여 하나의 픽셀을 이룬다. 서브픽셀은 전자를 주입해주는 음극, 전자와 정공*이 만나 빛을 만들어내는 발광층, 정공을 주입해주는 양극 등이 순서대로 다층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서브픽셀마다 일종의 밸브 역할을 하는 박막트랜지스터(TFT)가 양극(+) 쪽에 위치하고 있어 전류를 차단하거나 통하게 하고 전류량을 조절한다. 서브픽셀을 모두 끄면 검은색을, 모두 켜면 흰색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서브픽셀의 전류량을 조절해 빛의 양을 적절히 배합하면 다양한 색상의 빛을 표현해 낼 수 있다.

그렇다면 발광층에서 빛이 나는 원리는 무엇일까? 에너지가 가장 낮아 전자가 안정된 상태를 ‘바닥상태’라 한다. 그리고 바닥상태에 일정 이상의 에너지가 가해져 전자가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하며 높은 에너지를 지니게 된 상태를 ‘들뜬상태’라 한다. 들뜬상태의 전자는 안정화되려는 속성이 있어 다시 바닥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이때 전자는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 즉 바닥상태에서 들뜬상태가 되도록 가해졌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TFT가 전류를 흐르게 하면 들뜬상태가 된 전자가 양극을 향해, 정공은 음극을 향해 이동하다가 발광층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발광층에서 전자는 정공과 결합하며 안정화되어 바닥상태가 되고 이때 들뜬상태와 바닥상태의 에너지 차이만큼 대부분 빛에너지로 전환된다.

서브픽셀별로 나오는 빛의 색상은 발광층에 들어간 유기물질

이 지닌 ‘밴드 갭’에 의해 결정된다. 밴드 갭이란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영역 중 가장 높은 에너지 궤도(HOMO)와 전자가 채워질 수 있는 영역 중 가장 낮은 에너지 궤도(LUMO)가 지니는 에너지 준위의 차를 말한다. HOMO에 바닥상태로 존재하는 전자에 밴드 갭 이상의 에너지를 가하면 들뜬상태가 된 전자가 LUMO로 이동하여 정공과 결합한다. 이후 전자는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며 바닥상태로 돌아오면서 밴드 갭에 해당하는 파장의 빛을 방출하게 된다. 밴드 갭이 크면 빛을 내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밴드 갭이 큰 유기물질은 밴드 갭이 작은 유기물질에 비해 수명이 짧다.

OLED는 중간에 위치한 발광층에서 만들어진 빛을 어디로 내보내느냐에 따라 ㉡ 배면 발광과 ㉢ 전면 발광으로 나뉜다. 빛이 양극을 향해 나가면 배면 발광, 음극을 향해 나가면 전면 발광이라 한다. 배면 발광의 경우 음극은 전자의 주입 및 반사층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함수*가 낮고 불투명한 은과 마그네슘의 혼합 금속을 사용한다. 반면 양극에는 반대의 성질을 지닌 인듐과 산화주석의 화합물(ITO)을 사용한다. 그런데 빛이 양극에 위치한 TFT를 통과해 나갈 때 빛의 일부가 TFT에 막혀 빠져나가지 못해 개구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구율이란 단위 화소 전체 면적에서 실제로 빛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의 비율로, 개구율이 높으면 동일 전류를 흘렸을 때 나오는 빛의 양이 많아 휘도가 높다. 이 때문에 개구율의 저하는 휘도의 저하로 이어지고 일정 화질을 위한 휘도를 내기 위해서는 손실된 휘도만큼 더 밝게 발광시켜야 하므로 유기물질의 수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구율을 높이기 위해 TFT가 없는 음극을 향해 빛을 내보내는 전면 발광은 양극에는 일함수가 높고 반사층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이나 백금 같은 금속을 사용하고 음극에는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음극에 ITO를 사용하면 일함수가 높아 전자를 쉽게 내줄 수 없다. 결국 음극에는 일함수가 낮으면서도 투명도가 높은 금속을 사용해야 하는데,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속을 얇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음극이 일정 두께 이하로 얇아지면 면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저항이 높아지면 패널의 위치별로 생성되는 전압이 달라지게 되어 화면의 균일도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 미소공진현상을 이용하는 것이다. 발광층에서 생성된 빛의 일부는 반투명 음극을 통해 빠져나가지만 일부는 음극에 반사되어 양극을 향하고 양극에 다시 부딪혀 재반사되는데 이렇게 반사된 빛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며 미소공진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미소공진현상에 의해 빛은 위상이 일치하는 파동들이 만나면 보강간섭이 일어나 파동의 강도가 세지고, 위상이 반대인 파동들이 만나면 상쇄간섭이 일어나 파동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미소공진현상을 통해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휘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높은 전류로 구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OLED의 수명이 길어지게 된다. 더불어 조건에 일치하는 파장만 보강되고 조건이 맞지 않는 파장은 상쇄되므로 스펙트럼이 좁아져서 색의 순도가 높아지는 효과도 얻게 된다.

* 정공: 전자가 차지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전자가 없어 생긴 빈 공간, 전자와는 반대로 양전하를 갖는 전하 운반체로 일종의 가상의 입자.
* 일함수: 전자 하나를 밖으로 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일 또는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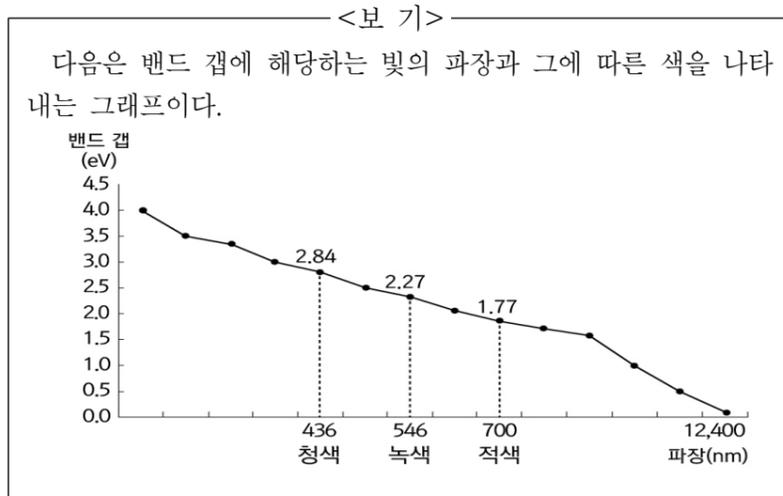
20.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OLED의 기능을 열거하면서 OLED로 색을 표현할 때 유의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OLED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면서 OLED의 구조와 발광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③ OLED의 발전 과정을 통시적으로 서술하면서 OLED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소개하고 있다.
- ④ OLED의 각 구성 요소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구성 요소들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
- ⑤ OLED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며 OLED의 종류에 따라 빛의 파장을 조절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흰색을 만들 때보다 청색을 만들 때 더 많은 전류량이 필요하다.
- ② 발광층에서 전자가 정공을 만나 빛을 방출하면 바닥상태로 돌아간다.
- ③ TFT를 이용하여 전류량을 조절하면 다양한 색상의 빛을 만들 수 있다.
- ④ 적색, 녹색, 청색을 낼 수 있는 서브픽셀 세 개가 모여 하나의 픽셀을 이룬다.
- ⑤ 전류를 흐르게 하면 양극과 음극에서 각각 정공과 전자가 발광층을 향해 이동한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밴드 갭의 크기가 큰 유기물질일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방출되는구나.
- ② 동일한 시간을 사용할 때, 녹색보다 청색을 내는 유기물질의 수명이 짧아지겠구나.
- ③ 밴드 갭이 2.5eV 이하인 유기물질을 모든 서브픽셀에 넣으면 흰색을 만들 수 없겠구나.
- ④ LUMO의 에너지 준위가 2.84eV이고 HOMO의 에너지 준위가 1.77eV인 유기물질은 적색을 내겠구나.
- ⑤ 2.27eV의 밴드 갭을 지니고 있는 유기물질은 전자가 들뜬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돌아오면서 녹색을 내겠구나.

2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음극에 투명도가 높은 물질을 사용하여 빛의 양을 늘려준다.
- ② ㉡는 음극을 얇게 만들수록 면저항이 낮아져 화면의 균일도가 높아진다.
- ③ ㉠과 ㉡는 모두 빛이 나가는 방향에 일함수가 높은 물질을 두어야 한다.
- ④ ㉠과 ㉡는 모두 빛이 나가는 반대 방향에 투명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여 반사율을 높인다.
- ⑤ ㉠은 휘도를 높이고 유기물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전류량을 필요로 한다.

24. 윗글의 [미소공진현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른 파동과 상호 작용을 하지 않을 경우 빛은 음극을 통과할 수 없구나.
- ② 서로 위상이 반대인 파동이 만나면 빛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기도 하는구나.
- ③ 파동 간의 간섭으로 한정된 파장의 빛만 나오게 되므로 색의 순도가 높아지는구나.
- ④ 전류량을 높이지 않아도 빛의 휘도를 높일 수 있으니 유기물질의 수명이 길어지는구나.
- ⑤ 파동 간 간섭이 일어나는 것은 양극과 음극에 반사를 일으키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이구나.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학공이 모친 슬하를 떠난 지 이미 십여 년이라. 노비 전답 문서를 매양 의복 속에 넣어 남이 몰라보게 하였더니, 그 문서를 신부가 알까 염려하여 그웁한 곳에 감추고 종종 가 보더니, 동지가 마침 그것을 보고 왈,

“거기다 무엇을 두고 저리 자주 보는고.”

하고 즉시 가 보니 전대에 두루마리 뭉치가 있거늘, 가지고 저의 방에 들어가 떼어 보니 하였으되, ‘강주 홍천부 북면에 사는 김 낭청의 아들 학공’이라 하였거늘, 동지가 대경하여 이르되,

“전일에 들으니 김 낭청 댁 종들이 낭청이 죽은 후 집의 가

[A] 장이 없는 것을 보고 나쁜 마음을 먹어 여러 놈들이 그 집 을 탈취하여 가지고 와서 사는지라, 주야로 들으니 그놈들 이 말하기를 그 아들 학공을 잡아 죽여 후환을 없이 하자 하는 말을 들었더니 이리 될 줄 어찌 알았으리오.”

하고 살펴보니 또 한 봉이 있거늘 자세히 보니 하나는 노비 전답 문서라. 동지가 대경하여 별선을 불러 왈,

“너희 들을 보지 못하면 눈에 암암하여지더니, 이런 참혹한 일이 어디 있으리오.”

하며 전후곡절을 말하니, 별선이 대경하고 낙루하며 왈,

“이 말이 만일 누설되면 낭군은 목숨을 잃을지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리이까, 부친은 이 말을 경솔히 누설치 마옵소서.”

하더라.

이때 학공의 나이는 십팔 세요, 별선의 나이는 십육 세라. 부부가 흥락하여 주야로 즐겨하더니, 일일은 별선이 낭군께 문 왈,

“낭군은 본디 어디 살아 계시며 부형은 뉘라 하시나이까.”

학공이 대 왈,

“조실부모한 고로 알지 못하노라.”

하니, 별선이 또 문 왈,

“낭군이 홍천 북면촌에 사시던 김 낭청의 자제가 아니나이까.”

학공이 변색 대 왈,

“이 말이 어인 말이고.” / 하니 별선이 대 왈,

“첩에게 감추지 마옵소서.” / 하고 저의 부친이 하시던 말씀을 자세히 말할 즈음에, 그 모 홍 씨가 딸의 방으로 놀러오다가 창 밖에서 들으니 여차여차하거늘, 이 말을 듣고 놀라 천방 지방 달려와 호흡을 통치 못하다가 동지에게 왈,

“여아의 방에 갔다가 들으니 저의 내외 하는 말이 사위가 홍천부 북면에서 살던 김 낭청의 아들이라 하니 매우 수상하더이다.”

동지가 크게 꾸짖어 왈,

“어디서 부당한 말을 듣고 옮기는다.”

하고 별선을 불러 왈,

“너의 모친이 마침 네 방에 갔다가 너희들이 여차여차하는 말을 듣고 와서 나에게 이르니 어찌된 말이냐.”

별선이 듣고 망극하여 왈,

“저희의 목숨은 부모님께 달렸사오니 불초한 자식을 보아 각별 조심하여 주옵소서.”

학공이 이 말을 듣고 또 들어와 엎드리며 왈,

“복망 빙부께옵서는 널리 생각하사 이 말을 누설치 마옵소서. 만일 이 말이 누설되오면 불쌍한 인생이 살기 어렵사오니 깊이 통촉하옵소서.”

하니, 동지가 학공의 손을 잡고 왈,

“장부가 아니로다. 어찌 대장부가 이만한 일을 두려워하리오. 내 어찌 이 말을 누설하리오. 조금도 염려치 말라.”

하니, 학공이 수심을 덜고 방으로 돌아오니라.

수삼 삭이 되도록 아무 일이 없더니, 하루는 홍 씨가 술을 대취하게 먹고 저의 동류에게 이 말을 하였더니, 차차 옮기어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아 촌중에 자자하여, 의논이 분분하여 죽일 묘책을 의논하니 학공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중략 부분 줄거리] 학공은 별선의 희생으로 계도섬을 탈출한 후 아버지의 죽마고우인 황 승상의 양자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자사가 되어 계도섬으로 돌아온다.

자사가 들어가며 좌우 산천을 바라보니, 산도 예 보던 산이오, 물도 예 보던 물이고, 수목도 예 보던 수목이라. 슬프다. 옛일을 생각하니 비회를 측량하지 못할러라. 자사가 감색을 불러 자사 왈,

“내 이 섬을 구경코자 와 보니, 섬은 절승지요, 또한 폐치 못할 섬이로다. 그러하나 인총(人叢)이 적으니, 온갖 구실과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장계했으니 그리들 알라.”

하니, 그곳 백성들이 분부를 듣고 여쭙되,

“태산 같은 덕택으로 안접(安接)*하게 해 주옵소서.”

하더라. 자사 왈,

“너희들은 하나도 떠나지 말고 안접하라.”

하고, 물가에 나와 배를 타고 떠나니 그놈들이 손 모아 축수하더라. 자사가 ‘원수를 갚을 비계를 얻으니, 어찌 즐겁지 아니 하리오’하고, 육지에 다다르니, 각 읍 군마와 대선이 다 등대했더라. 자사가 기뻐 즉시 이 뜻으로 천자에게 아뢰고, 황 승상과 임 감사에게 서간을 보내고, 도로 회정하여 섬으로 들어가더라.

이때 그놈들이 자사의 말씀을 곧이듣고 양양자득(揚揚自得)하여 지내더니, 자사 다시 들어오신다 하거늘 더욱 기뻐하여 강두에 나와 맞으며 좋아하더라.

자사가 들어갈 제 군졸더러 분부하여 왈,

“내가 이 섬을 포상하고자 하여 뜻을 나라에 아뢰었더니, 교지에 ‘다시 들어가 백성을 안무하라’ 하시기로 내 다시 왔다. 별로 분부할 말이 있으니, 너희는 가동주졸(街童走卒) 할 것 없이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대령하여 영을 들으라.”

이놈들이 모두 기뻐하여 남녀노소 가동주졸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였는지라. 자사 장대에 높이 올라 방포 일성에 백기를 휘 두르니, 억만 군병이 일시에 응답하고 둘러싸는지라. 기치창검은 일월을 희롱하고, 고각함성은 천지에 진동하더라.

자사가 그제야 완완히 나서며 모인 중에 분부하여 왈,

“타동 백성이 이 중에 있거든 좌편으로 앉으라.”

하고, 또 별선의 아비 내외도 좌편으로 가라 영을 내리시고, 그 남은 수를 살펴보니 부지기수라. 자사가 호통하여 말하기를

[B] “너희들은 나를 모르느냐? 나는 강주 홍천부 북면에서 살던 김 낭청의 아들 학공이다. 너희는 무슨 원수로 나의 부모 동

생을 다 죽이고자 하고, 나도 마저 죽이려 했더냐? 애매한 별선이란 죽인 것을 아느냐? 내 이제 부모 동생과 별선의 원수를 갚고자 하여 들어왔으니, 너희는 내 손에 죽어 보라.”

그놈들이 이 말을 들으며 대경실색하여 아니 떠는 놈이 없더라. 함정에 든 범이요 그물에 든 고기라 어찌 도망기를 바라리오. 속절없이 학공의 손에 일조에 함몰하나니라.

- 작자 미상, 「김학공전」

* 안접: 편안히 마음을 먹고 머물러 삶.

2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지는 학공이 지닌 두루마리 몽치를 통해 김 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집을 탈취하고 섬에 와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② 학공이 김 낭청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별선은 동지를 통해, 흥 씨는 학공 내외가 하는 말을 통해 알게 되었다.
- ③ 학공은 자신이 계도섬에 온 목적을 감추기 위해, 감색에게 계도섬을 구경하러 왔다고 말했다.
- ④ 계도섬 사람들은 자사가 학공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학공이 육지로 배를 타고 떠날 때 축수했다.
- ⑤ 학공은 계도섬의 백성들을 모두 모이게 한 후에 무고한 백성은 좌편에 앉게 해 그들이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26.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B]는 현재의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를 걱정하고 있다.
- ② [A]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B]는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A]는 자책하는 독백을 통해, [B]는 타인을 원망하는 말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 ④ [A]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기 위해, [B]는 상대를 질책하기 위해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 ⑤ [A]는 앞으로 닥치게 될 고난을 암시하고 있고, [B]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반란을 일으킨 노비와 주인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다룬 소설로, 조선 후기 절대적이라고 여겨졌던 신분제가 동요되고 해체되는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하층민의 신분 상승 욕구와 봉건적 질서를 수호하려는 양반층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 노비와 주인의 갈등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 | | | | |
|--------------------------------------|---|------------------------------------|---|--------------------------------------|
| 1차 갈등 배반한 노비 ⇕ 주인 가족 | → | 2차 갈등 강성해진 노비 ⇕ 학공 | → | 3차 갈등 권력을 얻은 학공 ⇕ 노비 |
|--------------------------------------|---|------------------------------------|---|--------------------------------------|

- ① '김 낭청 댁 종들'이 주인댁 가장이 없는 상황을 기회로 학공을 죽이려 하고 재산을 탈취한 것은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절대적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겠군.
- ② '김 낭청 댁 종들'이 학공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죽일 계획을 의논한 것은 학공의 존재가 자신들의 신분상에 위협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 ③ 학공이 계도섬에 '전세를 탕감하여 백성이 모여 살게 하도록' 나라에 요청했다고 말한 것에서 봉건적 질서를 깨뜨리려는 학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계도섬을 탈출했던 학공이 자사가 되어 권력을 얻게 된 것은 '김 낭청 댁 종들'과 학공 사이의 갈등 관계를 반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는군.
- ⑤ 계도섬에 돌아온 학공이 노비들을 '일조에 함몰'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복수이면서 동시에 신분 질서를 회복하려는 양반층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내심(內心)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법률 행위로서, 효과의사, 표시의사, 행위 의사에 이어 표시행위까지의 과정을 ㉠ 거치며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A가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서 B 소유의 토지를 사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의사표시 과정을 살펴보자. 전원주택을 짓고 싶다는 A의 생각은 '동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동기로 인해 A가 B 소유의 토지를 사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효과 의사'이다. 또한 이러한 '효과 의사'를 B에게 전달해야겠다는 A의 생각은 '표시의사'이며, 이렇게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 계약서 작성이라는 행위를 의도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행위 의사'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사를 토대로 토지 구입을 위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표시 행위'이다.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 따라서 동일한 법률 행위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의사표시의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의사주의', '표시주의', '효력주의'로 나뉜다. ㉢ 의사주의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의사표시자 내심의 효과의사, 즉 의사표시자의 진의로 파악한다. 그런데 의사주의의 관점을 취할 경우 의사표시자의 의사는 보호되지만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 표시주의는 의사표시자의 표시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표시의 본질을 표시행위로 파악한다. 한편 의사와 표시는 일체로서 양자 모두를 의사표시의 요소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를 ㉤ 효력주의라 한다. 이는 의사와 표시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기존의 인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효력주의에 따르면 표시행위는 의사의 단순한 외부적인 표시가 아니라 의사를 완성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들 수 있다. 착오의 기본 유형은 착오가 의사표시의 과정에서 효과의사의 결정, 표시행위의 이해, 표시행위 중 어느 단계에 발생하느냐에 따라 '동기의 착오', '내용의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동기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효과의사 결정 단계에서 의미 있는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이다. 금반지를 사려고 했는데 도금 반지를 금반지인 줄 잘못 인식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내용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의도한 대로 표시행위를 하였지만, 표시행위 이해 단계에서 그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생긴 경우이다. 금반지의 가격은 100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유로와 달러가 ㉥ 같은 가치를 지닌 화폐 단위인 줄로 잘못 알고 금반지를 100유로로 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표시상의 착오는 의사표시자가 표시하고자 의도한 것과 다른 표시행위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매계약서에 100,000원이라고 표시할 것을 착오로 10,000원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표시 과정에서 의사표시자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둘째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를 말한다. 즉 의사표시자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

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의사표시자의 입장에 ㉠ 섰더라면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내용의 착오나 표시상의 착오가 이에 해당하는데, 동기의 착오는 일반적으로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예외로 한다. 셋째로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의사표시자의 직업이나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한다. 주식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주식 양도의 제한 유무에 관하여 회사의 정관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의사표시자가 단순한 표시상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취소 배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의사표시자가 그의 의사표시에 있어 위험을 의식적으로 인식했음에도 모험적인 행위를 한 경우, 착오가 없을 때보다 착오가 발생했을 때 의사표시자에게 유익한 경우에 취소권이 배제된다. 그리고 상대방이 착오자, 즉 착오를 일으킨 의사표시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착오자가 의도한 대로 효력 있게 할 용의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도 취소권이 배제된다.

28.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시행위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다.
- ② 효과의사는 의사표시자의 동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 ③ 표시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해 효과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 ④ 의사표시자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⑤ 행위 의사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29~30> <보기>의 (가), (나)는 의사표시자인 '갑'과 '병'의 착오로 인해 각각 발생한 사건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가) 갑은 소를 사육할 목적으로 을이 소유한 과수원을 사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을에게 밝히며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을에게 지불하였다. 그런데 갑은 그 과수원이 소를 사육하기에 부적절한 곳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갑은 을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시의 도시 계획 결정에 따라 병 소유의 임야 중 일부가 공원 부지로 지정되었는데, 병은 공원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고자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시 공무원은 법령을 오해하여 병 소유의 임야 전부를 □□시에 증여하여야만 그러한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병은 그 공무원의 말을 따랐다. 이후 병은 자신의 증여 행위가 법령의 오해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9.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착오 발생 단계 | 착오 유발 주요인 |
|-------|-----------|-----------|
| ① (가) | 효과 의사의 결정 | 을 |
| ② (가) | 표시행위의 이해 | 갑 |
| ③ (나) | 표시행위 | 병 |
| ④ (나) | 효과 의사의 결정 | □□시 공무원 |
| ⑤ (나) | 표시행위의 이해 | □□시 공무원 |

30. 다음은 ㉠~㉣의 관점에서 <보기>의 (가)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갑이 토지를 사려는 목적이 소를 사육하는 데 있다는 점에 주목하겠군.
- ② ㉡은 갑과 계약을 맺은 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이 작성한 계약서에 주목하겠군.
- ③ ㉢은 갑이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갑이 가지고 있던 의사가 완성된다고 보겠군.
- ④ ㉠, ㉡은 모두 소를 사육하기 위해 을의 토지를 사려는 갑의 의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갑의 행위를 분리하여 보겠군.
- ⑤ ㉡, ㉢은 모두 계약서를 작성한 을의 행위가 소를 사육하고자 하는 갑의 의사에 우선한다고 보겠군.

3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매도인이 실수로 일반 시세 가격인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매매 가격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후 매수인이 1,000만 원에 매입할 의사를 밝힌 경우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매수인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법률상 공장 신설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던 매수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부동산이 신도시 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하여 가격이 급락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32.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 ② ㉡ : 의원들이 모두 의장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 ③ ㉢ :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세상에 또 없으실 거야.
- ④ ㉣ : 상하이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선 곳이다.
- ⑤ ㉤ : 밝은 달은 강물을 비추고 강물은 하늘을 비쳤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분석철학자인 카르납은 어떤 언명이 어법에 맞지 않거나 관찰 가능한 경험적 문장으로 환원될 수 없을 경우에 그 언명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이를 ‘사이비 언명’이라 부르며 배척하였다. 예를 들어 다음의 두 문장을 살펴보자.

- I. 카이사르는 그리고(Cesar is and).
- II. 카이사르는 소수이다(Cesar is a prime number).

‘I’는 어법에 맞지 않아서, ‘II’는 참과 거짓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관찰 사실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이비 언명’에 해당한다. 카르납은 특히 II와 같은 유형의 사이비 언명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하이데거와 같은 철학자들이 언어를 통해 형이상학적인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고 본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하이데거는 ‘무(無)란 무 자체가 무화(無化)한 것으로서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언명을 통해 ‘무’도 관찰 가능한 대상임을 말하고자 했다. 그러나 카르납은 이러한 하이데거의 언명에서 원래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문자적 의미의 ‘무’가 ‘존재인 동시에 존재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은유적 의미로 슬그머니 바뀌었음을 지적했다. 즉 카르납은 ‘무’에 대한 하이데거의 언명이 은유의 개입으로 인해 문자적인 의미가 은유적인 의미로 아무 이유 없이 변경된 사이비 언명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던 카르납은 세계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언어를 문자적 언어와 은유적 언어로 나누고 전자는 과학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후자는 문학과 같은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각각 고정해 두고자 했다. 카르납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 안에서 세계의 진리를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게 시인들의 은유적 언어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한 대상에 불과했으며, 오직 문자적 언어만이 세계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 여겼다.

이러한 카르납의 언어관과 달리 실용주의자 로티는 언어란 역사적 우연성의 산물로, 거기에는 어떤 고정적 의미나 초월적 진리가 담겨있을 수 없다는 다원주의적 관점을 보여 준다. 언어의 의미는 대상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우연하게 정해지는 것으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로티는 객관적인 문자적 언어와 주관적인 은유적 언어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구분해 줄 만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언어를 구분하는 것은 대상의 본질을 지시하는 하나의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인데, 로티는 이러한 생각이 언어의 우연적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한 은유적 언어는 그것이 사용된 특정한 맥락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일 뿐 언어 자체가 은유적인 본질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로티는 언어가 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어적 서술들의 옳고 그름만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뿐, 끝내 세계의 옳고 그름을 제시할 수는 없음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결국 로티는 ㉔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언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언명이 주어진 상황을 드러내는 데 적절하다는 것을 특정 시대의 전통과 공동체가 승인한다는 의미일 뿐 문화적, 시

대적 배경을 초월하여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세계에 관해 우리가 밝히는 것이 세계와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서술하는 언어끼리 비교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문자적 언어가 은유적 언어보다 그 진리에 더 부합한다고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로티는 이러한 언어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서술해 나가는 진리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재서술되면서 변화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했으며, 그런 점에서 철학적인 작업을 엄밀하고 체계적인 학문으로서보다는 문학적이고 시적인 작업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로티는 개인이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자신만의 어휘로 서술해 나가는 시인과의 같은 작업을 통해 저마다의 진리가 우연적이고 상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재서술해 나가는 개인을 일컬어 ㉕ 아이러니스트라고 불렀다. 로티는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이 자기완성의 길일 뿐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며, 그 개인적 진리를 공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다고 단정했다. 로티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궁극적 진리를 발견하고자 했던 과거의 수많은 철학자들 역시 아이러니스트에 불과할 뿐이므로, 그들이 찾은 진리 또한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자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스트는 사적인 영역에만 갇혀 공적인 것에 대해 무관심해질 수 있으므로, 로티는 사적 영역에서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공적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자가 될 것을 촉구했다. 그가 말하는 ㉖ 자유주의자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도과 관습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쳐 나감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줄여 나가는 연대성을 실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듯 로티는 보편적 기준이 적용될 수 없는 사적인 영역과 시대의 보편적 기준에 의해 지배되는 공적인 영역을 분리함으로써 진리 탐구의 과정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33.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카르납은 하이데거의 언명이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에서 증명될 수 있다고 여겼다.
- ② 로티는 언어의 우연성 안에 세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③ 카르납은 언어 자체의 의미에, 로티는 언어가 사용된 특정한 맥락에 주목했다.
- ④ 카르납은 문자적 언어가, 로티는 은유적 언어가 세계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낸다고 여겼다.
- ⑤ 카르납과 로티는 모두 객관적 언어와 주관적 언어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다고 보았다.

34. 윗글에 나타난 ‘카르납’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최근 죽은 채 발견된 향유고래를 부검한 결과 뱃속에서 100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고, 향유고래를 부검한 과학자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고 밝혔다.
- 철학자 니체는 종교의 초월성과 절대성, 즉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 가치가 인간을 무력하게 한다고 보고, ‘신은 죽었다’라는 언명을 통해 신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을 말하고자 했다.

- ① 향유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죽었다는 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이므로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는 진술은 유의미한 언명에 해당하는군.
- ② ‘신’으로 통칭되는 형이상학적인 가치는 생물이 아니어서 죽음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무의미한 언명에 해당한다고 봐야겠군.
- ③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원래 ‘생명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죽었다’라는 단어에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음’이라는 은유적 의미가 개입된 언명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말은 종교의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이비 언명에 해당한다고 봐야겠군.
- 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향유고래가 죽었다’라는 진술에서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신은 죽었다’라는 말에서 ‘죽었다’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겠군.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한 반응을 예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시인 한용운은 기미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당신을 보았습니다’라는 시를 썼다. 이 시에서 한용운은 ㉠ ‘온갖 윤리, 도덕, 법률은 칼과 황금을 제사지내는 연기’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의 윤리와 도덕, 법률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이지 못하고, 권력을 지닌 자나 재력을 소유한 자를 위해 봉사하는 구실밖에 하지 못하는 당대의 모순적 현실을 비판하고자 했다.

- ① 카르납은 ㉠이 시의 한 구절이라는 점에서 ㉠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것이다.
- ② 카르납은 ㉠이 정서적 표현의 영역에 해당하는 언어이므로 ㉠을 통해서 세계의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고 볼 것이다.
- ③ 로티는 ㉠을 구성하고 있는 시어들이 드러내는 의미가 우연하게 정해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 ④ 로티는 ㉠이 한용운에게 개인의 진리로 존재하기 위해 한용운과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여길 것이다.
- ⑤ 로티는 윤리와 도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당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볼 것이다.

36. 로티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 개인은 ㉠으로서 자신의 고유한 삶에 대해, ㉡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 ② 한 개인은 ㉠으로서 사적 영역에서 서술한 진리를, ㉡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실현해 내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③ 한 개인은 ㉠으로서 자기완성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으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한 개인은 ㉠으로서 자신만의 언어로 개인적 진리를 찾을 것이고, ㉡으로서 연대성을 실천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 ⑤ 한 개인은 ㉠으로서 자신을 서술하며 진리를 찾을 것이고, ㉡으로서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할 것이다.

37. ㉢에 대한 로티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옳다는 것은 세계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 ② ㉢은 다른 시대나 다른 사회에서 옳지 않은 서술이라고 판단될 수 있다.
- ③ ㉢은 다른 언어적 서술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절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 ④ ㉢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은 그것이 문자적 언어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이 없다.
- ⑤ ㉢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승인에 의하여 옳다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큰 산소의 아버지 옆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넉넉히 되지마는 장비(葬費)*는 터무니없고, 이런 세대에 무어 볼 거 있소. 간략히 화장을 해서 뼈나 갖다 묻두룩 하우.”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과 취직이며 생활 방도를 의논한 끝에 이러한 유연도 하고, 어떤 때는 유골을 갈아서 정한 산에 올라가 날려보내도 좋겠다는 지나는 말도 하여 가족들을 놀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유연은 언제나 한번은 죽을 것이니, 이 기회에 미리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두자는 것이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각오를 하고서 하는 말은 아니었다. 주사의 힘으로 버티어나가거니 하는 불안은 있으나, 주사를 놓고 나면 그 저리고 쑤시던 가슴이 훤히 터지고 부축을 하여서라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앓을 수 있는 것을 보면, ㉠ 자기의 원기에 대한 자신이 다시 생기고, 능히 소복되리라는 새 희망도 비치는 것이었다. 사실 어제 퇴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한참 부산한 통에 C라는 젊은 위문객이 왔을 때는 이때까지 서둘던 가족들이 무색하리만큼, 병인은 내일이라도 일어날 듯이 명랑한 낮빛으로 수작을 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이렇게 편찮으신 줄은 몰랐습니다그려. 지금 ××재단을 설립 중인데 물론(物論)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찌면 선생을 부사장으로 추대할 듯싶더군요. 그야 이사 자리야 하나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공교히 이렇게 누워 계셔서 안됐습니다. 어서 속히 일어만 나십쇼.”

C 청년은 병인의 기를 돋워주려고 위로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러한 내통을 하여주고, 또 그리하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없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찾아다니다가 병원까지 왔다는 말은치였다.

“흥, 그런 이야기가 있어! 좀 있으면 일어나게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 축들 만나건 잘 부탁해주우…… 어, 오늘 C 군이 찾아 준 것도 의외지만, 아마 나두 이제 운이 터려는군! 힘 좀 써주슈. 꼭 부탁하우.”

병인은 젊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은근한 정을 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젊은 손은, 병 증세를 캐어묻고 병인의 가다가다 허청 나오는 목소리와 어떻게 보면 사색에 질린 낮빛을 이모저모 뜯어보는 눈치더니, 처음 달려들면서 떠벌려놓던 기세와는 판판으로 차츰 기색이 달라지면서 꿈무니를 빼는 수작을 어렵어가고는 훌쩍 가버렸다. 병인은 그래도 신기(身氣)가 매우 좋아서, ㉡ 아내더러 내일은 P에게 연락을 해서 그 ××재단의 내용을 알아보고, A에게 가서는 이러저러한 전달을 하고 부탁을 하여두라는 분별을 하고 누웠다. 용위를 하고 앉았는 가족들은, 이 양반이 오늘 해를 못 넘기리라고 서둘던 양반인가?

하는 생각에 떨끄미 병인의 얼굴을 바라들 보며, 어쨌든 반갑고 기쁘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과시 병이 고망(膏盲)에 깊이 든 것이 아닌 것 같기도 보여 다시 새로운 희망도 생기는 것이었다. ㉠ 퇴원을 재촉하고 장사 지낼 걱정을 끼리끼리 수군거리던 것이 우습기도 하였다.

C 청년이 다녀간 뒤에 의사가 저녁때에야 들어왔다. 오늘도 가슴이 메어지고 숨이 막힐 때마다 K 선생을 불러오라 하고 출근을 아니 하였거든 자기 집에 전화를 걸라고 하던 K 의사가 들어왔다. 병자는 아까 놓은 주사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 그리 급한 지경은 아니나 의사의 얼굴만 보아도 되었다.

“오신 길에 주사를 또 한 번…….”

환자는 조금 있으면 또 닥쳐올 고통이 무서워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의사를 붙든 김에 아주 미리 주사를 듬뿍 맞아두고 싶은 생각이었다. / “아, 놓아 드리죠.”

㉡ 진찰을 대강 하여보고 의사가 주사약을 가지러 나가는 것을 보고 명호는 병자의 눈에 안 띄게 슬며시 뒤쫓아 나갔다.

“오늘 퇴원을 시킬까 하다가 선생두 안 오시구 해서 그만두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모양인가요?”

“오늘날 새로 어떻겠습니까마는 퇴원하시죠.”

퇴원한다는 말에, 의사는 도리어 반색을 하는 눈치였다.

[중략 부분 줄거리] 다음 날 동생 명호와 함께 퇴원한 병인은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 사망한다.

발상(發喪) 전의 과수택은 옆방에서 부리나케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다. ㉢ 명호가 오늘 반나절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며 지어온 약봉지가 먼저 방바닥에 떨어졌다. 병자가 이틀을 두고 성화를 대며 즐라서 먹으려던 것이다. 과수택은 컵 속에 넣은 물 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로 가지고 가더니 신체의 주위에 말끔히 뿌렸다. 세를 붙이고 받아둔 성수였다.

발치께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는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제사는 일체 폐하시나요?”

하고 물으니까 과수택은 / “그렇게까지야 하겠습니까.”

하고 다만 좋은 일이니,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이었다. 초상집에서는 우선 삼일장이냐 오일장이냐 하는 의논이 벌어졌다.

“화장을 하라신 유언도 계셨으니 화장으로 모시면야 삼일장도 넉넉할 겁니다.”

명호는 첫째 장비 걱정으로 화장을 앞세웠다.

“그야 우리 형세에 삼일장이죠마는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두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겠됐는데요.”

여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러하다 말할 나위가 없었다. 혹은 이 과수택도 뒤미처 들어갈 테고 보니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럴지도 모르나, 돌아간 이도 아직 먼 앞일이거나 하고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을 입 밖에 냈을는지 몰라도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역시 선산에 묻히고 싶어 하였을 것도 넉넉히 짐작할 일이었다. 나 죽은 뒤에는 수의를 무슨 감으로 하여달라느니, 관 속에는 이것저것을 넣어달라느니 하는 유언도 하거든, 자기 묻힐 자리를 초점(焦點)까지 해놓고서 거기에 못 묻힐까 보아 애를 쓰며 세상을 떠나는 것도 무리가 아닐지도 몰랐다.

“말이 삼 일이지, 오늘 해는 다 가구 내일 하루인데, 첫째 산역(山役)*이 문제로군. / 호상차지(護喪次知)*의 걱정이었다.

“영구차에 버스 한 대는 따라야 할 테니, 자동차 샀만 해두 두 대에 사만 원은 예산을 쳐야 할걸.”

홍제원 화장장이면 고작해야 오륙천 원에 너끈할 것인데, 없는 돈에 찾삿이 사만 원 예산이라니 엄청나다는 말눈치였다.

“화장이나 매장이나 돌아간 뒤에야…….”

젊은 축들은 저희끼리 이런 소리를 수군거리는 것이었다.

- 염상섭, 「임종」

* 장비: 장사 비용.

* 산역: 시체를 묻고 묘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

* 호상차지: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는 사람.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여 상황에 따른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장면의 전환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내적 고백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⑤ 인물들 간의 회상을 교차시켜 현재 상황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신의학자 퀴블러 로스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자신의 병세를 짐작하면서도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거나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게 된다는 상실감에 우울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대체로 일시적이며 점차 자신의 상태를 수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들은 환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환자의 요구를 존중하되, 환자를 보호하려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무한정 미뤄서는 안 된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 ① ㉠: 병인은 주사약으로 통증만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병이 회복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군.
- ② ㉡: 병인이 아내에게 지시하는 행동은 퇴원한 후에 ××재단의 고위직을 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겠군.
- ③ ㉢: 병인의 가족들이 장사 지낼 걱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수군거리던 것은 장례 절차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를 미루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 명호가 병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며시 의사를 따라 나서 병인의 병세를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될 환자의 반응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군.
- ⑤ ㉤: 명호가 병인의 성화에 못 이겨 반나절이나 걸려 힘들게 약을 구해 온 것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군.

4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병인은 자식들의 교육이나 취직을 걱정하여 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C 군은 병인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 방문했다는 의도를 숨기려고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
 - ③ 가족들은 C 군이 다녀간 뒤 병인의 행동을 살핀 후 병세가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의사는 명호에게 병인의 증상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 안심시키며 퇴원을 허락한다.
 - ⑤ 과수택은 명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형편을 생각하여 화장을 한 후 삼일장을 치르기를 원한다.

41.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1940년대에 창작된 「임종」은 죽음의 의미를 인물의 내적 고민과 방황의 절정에서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미화하여 제시했던 이전 시기의 작품들과 달리 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전통적 가치, 종교적 가치, 현실적 가치 등이 혼재된 등장인물의 다양한 반응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럼 등장인물의 모습을 통해 이 작품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 1 : 과수택이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성수'를 뿌리며 의식을 치르는 것에서 종교적 행위를 따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2 : 병인의 사망 이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장비'와 '차상'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죽은 자에 대한 애도보다는 산 자의 이익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3 : 등장인물들이 '제사'나 '오일장'을 치를지에 대해 의논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가치가 더 이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4 : 병인이 '주사약'이나 '약'에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 죽음을 자신의 내적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학생 5 : 젊은 축들이 '화장'이든 '매장'이든 상관없다고 수군거리는 모습에서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을 답답해하는 집단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취안(醉眼) 잠간 드러 석문을 바라보니
 놀랍다 저 산봉우리는 어이하여 쏘뉘는고
 용문산 썩린 도끼 수문(水門)을 내엿는가 [A]
 거대한 신령의 큰 손바닥 산창(山窓)을 밀쳤는가
 만고(萬古)의 동개(洞開)하여 다들 줄 몰랐도다
 신선이 농사짓던 열두 배미 요초(瑤草)*를 심었던가
 선인(仙人)은 어디 가고 풀만 남아시니 [B]
 우리 백성 농사를 권하여 수역(壽域)*의 울니고져

만강풍랑(滿江風浪) 치는 곳의 은주암 기묘홀샤
 작은 고깃배로 드러가면 처사 종적(處士蹤迹) 기뉘 알니 [C]
 팔관동(八判洞) 기픈 곳을 무릉이라 호건마는
 인거(人居)는 어디인지 백운(白雲)만 짐껏셔라
 하진(下津)의 배를 내려 단암서원(丹巖書院)* 침배(瞻拜)*하니
 지금까지 끼친 덕이 산수간의 흘러 잇다
 석주탄(石柱灘) 맞비 건너 강선대(降仙臺) 올라 서니
 양액(兩腋) 청풍(淸風)이 가볍게 들리는 듯
 (중략)

오로봉(五老峰) 진면목(眞面目)은 부용(芙蓉)이 소사는 듯
 호천대(壺天臺) 올라 안자 전체를 대강 바라보고
 창하정(倉霞亭) 잔을 드러 풍연(風煙)을 희롱(戲弄)타가 [D]
 홀연히 도라보니 이 몸이 등선(登仙)홀 듯
 일흥(逸興)을 가득 시러 흥 구비 흘러 도니
 마쵸 오는 옥순봉(玉筍峰)이 쏘다시 신기(神奇)이허다
 하늘 기둥은 우뚝 솟아 북극을 괴왔는 듯
 화표(華表)*는 우뚝 서서 백학이 넘노는 듯 [E]
 벽옥낭간(碧玉琅玕)*이 낫낫치 버러시니
 이 떨기 열매 열면 봉황이 먹으리라
 단구동문(丹邱洞門)* 새긴 글쵸 선현(先賢)의 필적이라
 신선의 땅을 중히 여겨 경계(境界)를 정호신가
 - 신광수, 「단산별곡」

- * 요초: 아름다운 풀.
- * 수역: 다른 곳에 비하여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은 지역이란 뜻으로, 풍요롭게 사는 즐거운 삶을 비유적으로 이룸.
- * 단암서원: 우탁과 이황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한 서원.
- * 침배: 선조 혹은 선현의 묘소나 사당에 우러러 절함.
- * 화표: 망주석과 같이 묘 앞에 세우는 문.
- * 벽옥낭간: 옥과 진주 같은 아름다운 돌을 이르는 말.
- * 단구동문: 옥순봉에 새겨진 퇴계 이황의 글씨.

(나)

다시, 자전거를 저어서 바람 속으로 나선다.
 봄에는 자전거 바퀴가 흙 속으로 빨려든다. ㉠ 이제 흙의 알맹이들은 녹고 또 부풀면서 숨을 쉬느라고 바쁘다. 부푼 흙은 바퀴를 밀어서 튕겨주지 않고, 바퀴를 흙의 안쪽으로 끌어당긴다. 그래서 봄에는 페달을 돌리는 허벅지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 허벅지에 가득 찬 힘이 체인의 마디를 돌리고, 앞선 마디와 뒤따르는 마디가 당기고 끌리면서 바퀴를 굴린다.
 몸의 힘은 체인을 따라 흐르고, 기어는 땅의 저항을 나누고 또 합쳐서 허벅지에 전한다. 몸의 힘이 흐르는 체인의 마디에서 봄빛이 빛나고, 몸을 지나온 시간이 바퀴로 퍼져서 흙 속으로 스민다. 다가오는 시간과 사라지는 시간이 체인의 마디에서 만나고 또 헤어지면서 바퀴는 구른다. ㉡ 바퀴를 굴리는 몸의 힘은 절반쯤은 땅속으로 잠기고 절반쯤이 자전거를 밀어주는 데, 허벅지의 힘이 흙 속으로 깊이 스밀 때 자전거를 밀어주는 흙의 힘은 몸속에 가득 찬다.
 봄의 부푼 땅 위로 자전거를 저어갈 때 흙 속으로 스미는 몸의 힘과 몸속으로 스미는 흙의 힘 사이에서 나는 늘 찢찢했다. 페달을 돌리는 허벅지와 장판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봄은 몸속 깊이 들어온 것이다. 봄에는 근력이 필요하고, 봄은 필요한 만큼의 근력을 가져다준다. 자전거를 멈추고 지나온 길을 돌아

보면, 몸을 떠난 힘은 흙 속에 녹아서 보이지 않는다. 지나간 힘은 거둘 수 없고 닳쳐올 힘은 경험되지 않는데 지쳐서 주저앉은 허벅지에 새 힘은 가득하다. **기진한 힘 속에서 새 힘의 싹들이 돌아나오고**, 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지만 설명할 수 없다.

㉠ 자전거를 저어서 나아갈 때 풍경은 흘러와 마음에 스민다. 스미는 풍경은 머무르지 않고 닳치고 스쳐서 불려가는데, 그때 풍경을 받아내는 것이 몸인지 마음인지 구별되지 않는다.

풍경은 바람과도 같다. 방한복을 벗어버리고 반바지와 티셔츠로 봄의 산하를 달릴 때 몸은 바람 속으로 넓어지고 마음은 풍경 쪽으로 건너간다. ㉡ 나는 몸과 마음과 풍경이 만나고 또 갈라서는 그 언저리에서 나의 모국어가 돌아나기를 바란다. 말들아, 풍경을 건너오는 새떼처럼 내 가슴에 내려앉아다오. 거기서 날갯소리 퍼덕거리며 날아올라다오.

태풍전망대에서 바라다보이는 임진강 너머 북녘 산하에 봄빛이 내린다. 산이 열리고 강이 풀려서 물은 수목의 비린내를 실어내린다. 도라전망대에서 마주 보이는 개성 남쪽 들녘에서 손수레를 끄는 농부들이 밭으로 두엄을 실어내고 있다. **대지의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온다.**

오두산전망대 아래 임진강은 밀물에 가득 차고 썰물에 아득하다. 가득 차고 아득한 물이 멀어서 닿을 수 없는 공간 속으로 나아간다. 하구의 시간과 공간은 크나큰 용해의 힘으로 느리고 평화롭다. 한강, 임진강, 한탄강이 거기서 모이고, 개성 쪽에서 내려온 예성강이 그 큰 물길에 합쳐진다. 그 늙은 강의 이름은 조강(祖江)이다. ㉢ 할아버지의 강이고, 조국의 강이며, 소멸의 힘으로 신생을 이끄는 새로운 시간의 강이다. 지금, 내 자전거는 조강 언저리를 나아가고 있다. 자전거는 노을에 젖고 바람에 젖는다. 저물어도 잠들지 않는 내 허벅지의 힘을 달래가면서 나는 풍경과 말들을 데리고 천천히, 조금씩 아껴서 나아가겠다.

- 김훈, 「자전거 여행」

42.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문장의 어순을 도치하여 화자의 체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43. [A] ~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석문의 모습을 수문과 산창에 비유하여 초월적 존재가 만들었다고 여길 만큼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신선이 살았을 법한 땅에 농사짓기를 권하여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③ [C]에서 화자는 은주암과 팔관동을 속세와 단절된 곳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종적을 다른 사람이 알 것을 걱정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D]에서 화자는 호천대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창하정에서 술을 마시면서 신선이 된 듯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 화자는 옥순봉의 모습을 여러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며 자신이 바라보는 풍경의 신이함을 드러내고 있다.

44. (나)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흙의 알맹이에 생명감을 부여하며 봄의 대지 위를 힘을 주어 달리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몸의 힘과 흙의 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 주며 자전거 바퀴를 굴리면서 느끼는 흙과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자전거를 타며 마주친 풍경이 자신에게 의미를 더해가는 상황을 제시하며 몸과 마음으로 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모국어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풍경 속에서 느낀 바를 우리말로 온전하게 표현하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조강의 언저리에서 벗어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강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내고 싶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는 화자가 단양팔경을 유람하고 쓴 기행 가사이고, (나)는 글쓴이가 자전거 여행 중에 느낀 생각을 쓴 기행 수필이다. 이러한 기행 문학에는 일상적인 공간을 떠나 여행 중에 마주친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묘사와 감흥이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을 통해 깨달은 다양한 생각이 담겨 있다. 또한, 여행 중에 사람을 만나고 여행지와 관련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들을 예찬하거나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고 싶은 소망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① (가)의 ‘지금까지 끼친 덕이 산수간의 흘러 있다’는 단암서원에서 침배하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선현들을 예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가)의 ‘오로봉 진면목은 부용이 소사는 듯’은 여행 중에 마주친 오로봉의 아름다움을 연꽃에 비유하여 묘사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의 ‘단구동문 새긴 글썩 선현의 필적이라’는 ‘이황’을 떠올리며 높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나)의 ‘기진한 힘 속에서 새 힘의 싹들이 돌아나오고’는 지친 몸에 새로운 힘을 채울 수 있는 봄의 생명력을 여행을 통해 깨달았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나)의 ‘대지의 향기가 봄바람에 실려온다’는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농부들의 모습을 보고 느낀 봄날의 감흥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